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아비코전자(036010)

##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송나영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비코전자(036010)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수동소자 제조 선도기업

##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김창수
설립일자	1973년 10월 19일
상장일자	2002년 07월 0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주요제품	전자인덕터 전자저항기 제조

## ■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동 소자(인덕터, 저항기)

아비코전자(이하 '동사')는 수동 소자 3대 부품 중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노이즈를 제거하여 신호 품질을 개선하는 시그널 인덕터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파워 인덕터이며, 메모리 모듈의 전원 관리를 위한 칩저항기는 또 다른 주력 제품이다. 수동 소자 기술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동사는 전자제품의 필수 범용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인덕터와 저항기를 납품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들의 고집적화, 고밀도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동 소자의 소형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되면 부품의 장착 개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초소형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동사는 1994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동 소자 분야의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메탈 파워 인덕터의 초소형화 기술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 차세대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시장 다각화

전자기기의 소형화, 고기능화로 인해 경박단소화 기술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수동 소자는 응용 분야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는 특성이 있고, 고기능을 수행하는 상위 산업의 제품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동사는 5G, IoT, 커넥티드카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에 따라, 5G RF 모듈용 고용량 저손실 초소형 인덕터, 자동차 전장향 파워 인덕터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장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목표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다.

## 시세정보(2021/01/11 기준)

현재가(원)	8,1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77
발행주식수	13,292,934
52주 최고가(원)	8,810
52주 최저가(원)	2,800
외국인지분율	16.40%
주요주주	행진개발(주) 김제영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840.8	4.3	91.5	10.9	76.6	9.1	8.9	8.2	5.4	577	6,726	12.2	1.3
2018	998.5	18.8	65.6	6.6	261.5	26.2	26.4	24.0	14.0	1,967	7,146	8.8	0.7
2019	1,233.2	23.5	(23.2)	(1.9)	(50.6)	(4.1)	(4.8)	(4.1)	18.2	(381)	6,759	(13.7)	0.7

## 기업경쟁력

### 초소형화 인덕터 국산화 기술 보유

- RF용 0.4mm \* 0.2mm 초소형 인덕터 개발 기술 확보
  - 세라믹을 이용한 고주파 RF 용 High-Q 인덕터 개발
  - 저손실의 Glass 기반 High-Q 인덕터 기술 확보
- 메탈타입 파워 인덕터 국산화 성공
  - 메탈코어를 이용한 Low Rdc 인덕터 개발
  - 메탈 성형기술에 의한 초소형 High-Current 인덕터 개발

### 기술경쟁력 제고

- 국내 특허 등록 14건 권리 확보
- 지속적인 R&D 투자로 응용 분야별 신제품 라인업
- 기술집약적 사업을 영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및 기술진입장벽 구축
- 제품 신뢰성 확보로 품질 기술력 우위 확보

## 생산 제품 및 적용 분야

### 주요 생산 제품

- 타입별 제품 다각화로 시장 수요 확대 예상

CERAMIC WINDING	METAL WINDING	METAL ALLOY
 LMC  LMFC <small>개발진행</small>	 LPSM  LPSC	 LPP  L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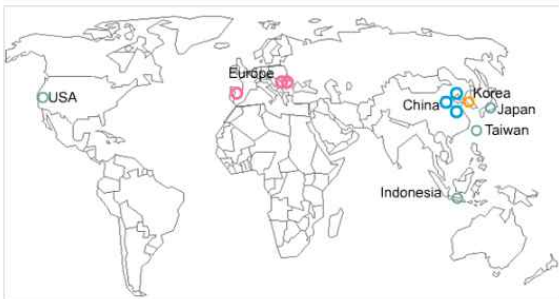
### 적용 분야 확대

- 시그널 인덕터: 스마트폰 RF, 스피커, NFC 에 적용
- 파워 인덕터: TV,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품, 반도체 등에 확대 적용 중

## 시장경쟁력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베트남에 대량 생산 양산체계 구축
- 일본, 미국, 유럽 내 영업 인프라 확보



### 시장 인지도 확보

- 수동전자부품, 47년 업력 보유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기술협력

## 최근 변동사항

###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지원 확대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기술, 생산역량, 공급망 강화
- 차세대 전략기술(스마트카, 반도체, 바이오) 투자 지원금 확대
- ICT 장비, 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및 연구 기관 협력 지원

### 차세대 DRAM, DDR4 공급확대

- 초고속, 저전력, 대용량 DDR4의 서버, PC용 제품생산 증가
- DDR4 메모리 모듈의 수동소자 채용 증가

# I. 기업현황

## 전자기기 핵심부품인 인덕터, 저항기 생산 기업

아비코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페라이트, 메탈 타입의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 개요

아비코전자(이하 동사)는 1973년 10월에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3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저항기, 인덕터 등의 수동전자부품이며, 제품개발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 동사의 2020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해 있으며, 총 15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는 2018년 PCB 제조업체인 코스모텍을 인수하였고, 코스모텍의 상호명을 아비코테크로 변경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인덕터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1976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진개발이며, 21.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행진개발)의 대표이사 및 동사의 대표이사 김창수는 1.02%, 김제영 前 회장은 12.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관계 회사

업체명	주요사업
아비코테크(주)	연성 인쇄회로기판
ABCO ELECTRONICS VINA CO., LTD.	인덕터
영성아비코전자	인덕터

\*출처: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표 2 동사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행진개발(주)	21.67
김창수	1.02
김제영	12.84
김완중	0.04
<b>합계</b>	<b>35.57</b>

\*출처: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 ■ 대표이사 정보

김창수 대표이사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5년 3월 2세 승계를 통해 아비코전자에 취임하였고, 2018년 아비코테크를 인수하면서 각자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이종만, 김창수 각자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되었으며, Nishimoto Trading의 미국 영업총괄업무와 일본에서 IBIS 기업을 경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 ■ 기술 개발 인프라 및 생산 기술력

동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전자부품 및 소재 연구를 위한 기술연구소를 1994년부터 운영 중이다.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휴대폰, 노트북,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적합한 전자 소자를 상용화하고 있다. 주요 생산 중인 소자는 인덕터와 저항기이며, 인덕터는 동선을 나선 모양으로 감은 코일 형태로 리드형과 칩형으로 구분된다. 칩형 인덕터는 고밀도의 표면실장이 가능하여 전자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및 다기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다. 동사는 시장 수요에 따라 칩형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적시생산시스템(JIT: Just In Time)을 적용하여 재고를 최소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 품질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기술개발 실적

연구과제	기대효과
RF용 초소형 SMD 시그널 인덕터 개발	0.4X0.2mm 크기의 초소형 휴대폰 및 모듈에 적용되며, 효율 향상 효과
메탈 파워 인덕터 개발	메탈 소재의 초소형 파워 인덕터 개발로, 노트북, 휴대폰, LCD 등의 소형화 기술에 적용
초소형 LMF 칩 인덕터 개발	0.8X0.5X0.5mm 크기의 초소형으로 휴대폰의 스피커, NFC에 적용
저가형 파워 인덕터 개발	저가형 모델을 개발하여 원가경쟁력 확보

\*출처: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 ■ 매출 비중 및 시장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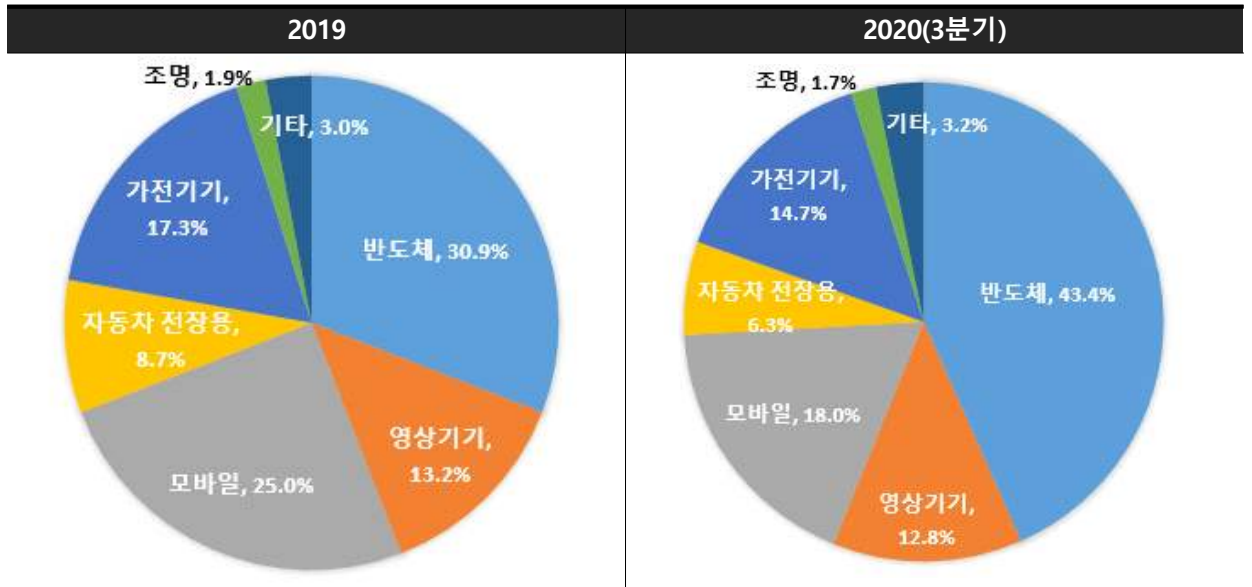
인덕터와 저항기는 전자회로 설계에 핵심이 되는 필수 부품이다. 동사의 전체 제조 매출 중 90% 이상은 칩형 인덕터이며, 이는 특정 주파수를 추출하거나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 기능을 수행한다. 칩형 인덕터는 제품의 목적에 따라 신호를 제어하는 시그널 인덕터와 전원회로에 쓰이는 파워 인덕터로 구분된다. 국내 수동소자 산업은 일본 등의 해외 부품사에 의존도가 높았으나, 동사는 시그널 인덕터를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파워 인덕터의 소형화 기술이 개발된 후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메탈 파워 인덕터는 기존의 페라이트 소재보다 60% 성능이 향상되고, 초소형화할 수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동사의 메탈 파워 인덕터는 국내 스마트폰, SSD 메모리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반도체, 영상기기, 모바일, 가전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며, 전체 매출 중 반도체의 비중이 2016년에는 약 20%에서 2019년 기준 약 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의 비중이 43%까지 상향되었고,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의 수동소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동사의 생산 제품은 모든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핵심부품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응용분야를 확대하여 자동차용, 조명용 수동소자를 상용화하고 있다.



그림 1. 응용 분야별 매출 비중



\* 출처: IR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초소형 인덕터, 초박형 인덕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공통모드 필터 등의 공정효율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기술을 개발하였고,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의 권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특허 등록 현황

특허명	등록번호	등록일
공통모드 필터 및 제작 방법	10-2123630	2020.06.10
초소형 인덕터 및 이의 제조 방법	10-1887106	2018.08.03
초소형 인덕터 및 이의 제조 방법	10-1853850	2018.04.25
연자성 복합재 및 이의 제조 방법	10-1826421	2018.01.31
인덕터 및 인덕터 제조 방법	10-1244439	2013.03.11
초박형 인덕터 및 그 제조 방법	10-1194785	2012.10.19
인덕터 몰딩 장치 및 몰딩 방법	10-1182392	2012.09.06
인덕터 제조 장치	10-1179259	2012.08.28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II. 시장 동향

###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수동부품 산업

수동부품 산업은 국내외 수동 부품 시장의 꾸준한 수요 발생과 전방산업의 발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 국내 전자유도 코일 및 쇼크, 전자부품 시장 현황

동사는 구리, 알루미늄 소재의 코일로 구성된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인덕터는 전자유도 코일 및 쇼크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의 요소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재 산업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적 특징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고밀도 정밀 제조방식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아비코전자, 삼성전기, 크로바하이텍, 티엔씨 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자유도 코일 및 쇼크 시장의 2014년도 매출 규모는 약 2,823억 원이며, 연평균 3.4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8년 3,229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연평균 성장률 3.42%를 반영한 2020년 시장규모는 3,453억 원으로 추정되며,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상위 산업의 영향으로 매출의 증감현상이 나타난다. 전자유도 코일 및 쇼크산업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며,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발전이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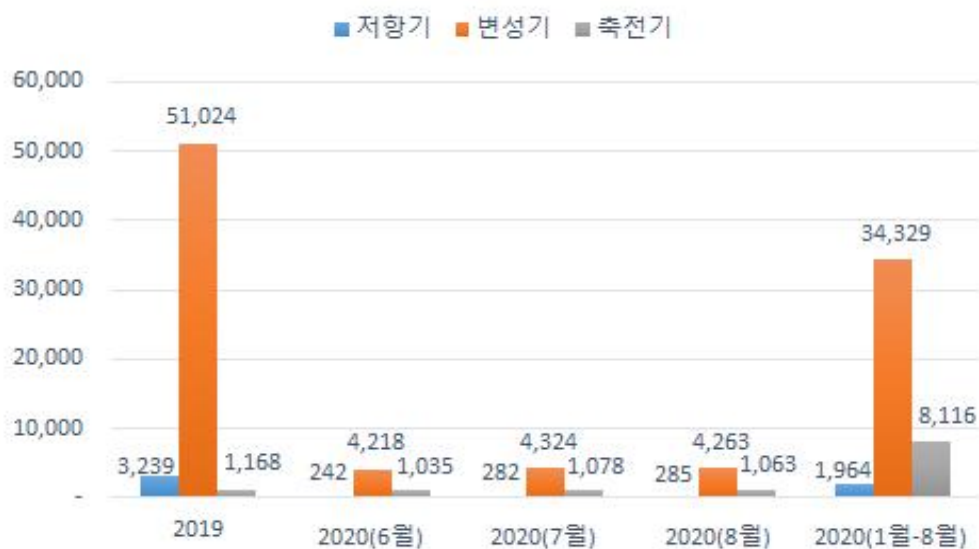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전자유도 코일 및 쇼크 매출규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주요품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부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부품으로 구분되고, 기타 전자부품은 수동부품, PCB, 센서, 접속부품 등이 포함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자부품 생산규모는 196조 원이며, 2020년 하반기는 126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전자부품의 경우, 전자관, 센서, 접속부품은 감소하였으나, 수동부품과 PCB는 각각 3.9%,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동부품은 저항기, 변성기, 축전기로 구분되고, 3개의 부품 중 변성기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2019년 생산규모는 6조 5,930억 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3. 국내 수동부품 생산액 현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ICT주요품목동향조사',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세계 수동 전자부품 시장 현황

전자부품은 전자기에 사용되는 최소의 구성 요소이며, 크게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로 구분된다. 수동 소자는 에너지의 발생이나 공급을 하지 않고 집적회로(IC)에 부속되어 기능을 수행한다. 수동 전자부품의 종류는 인덕터, 저항, 커패시터, 변압기, 다이오드 등이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Markets and Markets는 2022년까지 세계 수동소자 시장의 성장률은 2.36%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항기는 2.10%, 인덕터는 2.1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세계 수동 전자부품 분류별 시장규모(단위: 십억 달러)

수동소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2	성장률
저항기	6.16	6.37	6.53	6.69	6.84	7.13	7.42	2.10%
인덕터	6.01	6.21	6.37	6.53	6.67	6.96	7.25	2.12%
커패시터	9.82	10.27	10.66	11.05	11.43	12.20	13.00	3.30%
트랜스포머	7.82	8.05	8.22	8.39	8.54	8.83	9.12	1.69%
다이오드	2.05	2.12	2.17	2.21	2.25	2.33	2.40	1.60%
합계	31.86	33.02	33.95	34.87	35.73	37.45	39.19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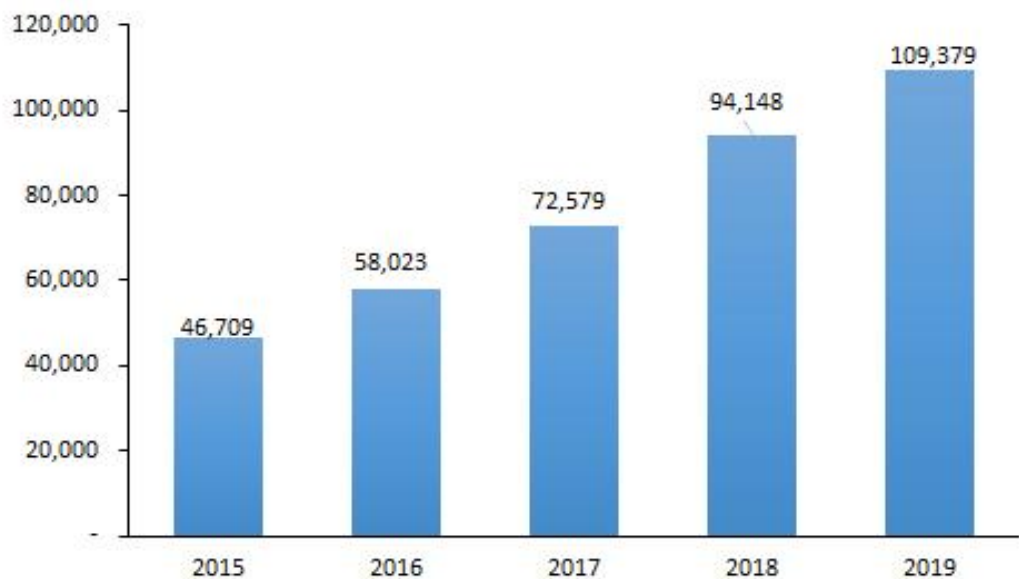
\*출처: Markets and Markets,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국내 IoT 시장의 성장

인덕터와 저항기는 모바일기기, 노트북,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동사는 반도체, 모바일기기, 영상기기, 가전기기, 자동차 전장품향 소자를 상용화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PC에서 모바일, 모바일에서 데이터센터로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DRAM인 DDR5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동사는 IoT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초소형화 및 다기능화된 인덕터를 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사물인터넷 매출액은 10조 9,379억 원으로 연평균 23.7%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액의 하드웨어 매출액이 4조 4,79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내 IoT 매출규모(단위: 억 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Ⅲ. 기술분석

### 수동 소자 국산화 기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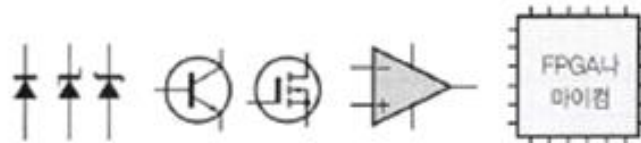
아비코전자는 IT기기의 기술 트렌드에 따라 초소형 인덕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동 소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 전자기기의 핵심부품, 수동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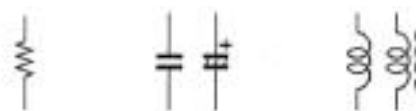
동사의 핵심 생산 제품은 리드 인덕터, 칩 인덕터, SMD 파워 인덕터, 시그널 인덕터 등의 제품과 리드 레지스터 칩, 레지스터 등의 저항기이며, 국내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등의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자회로가 설계된다. 전자회로는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로 분류하며, 능동 소자는 입력된 전기 에너지를 증폭하거나 변환할 수 있고, 수동 소자는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발생할 수 없고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축적 또는 통과하는 역할을 한다. 수동 소자의 3대 소자는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기이며, 여러 개의 소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복합 부품이 개발되고 있다.

표 6. 전자부품(능동 소자, 수동 소자)

능동 소자	
다이오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지님.
트랜지스터	증폭, 발진, 스위칭, 정류, 검파 등의 기능을 지님.
연산증폭기	두 개의 입력 단자 간의 전압 차이를 증폭시키는 소자
IC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능동소자, 수동소자를 초소형으로 집적.



수동 소자	
커패시터	일정량의 전기를 저장했다 방전하는 부품. 전자회로 전반에 사용.
인덕터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며, 전원, RF회로, 어댑터 등에 사용.
저항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으며, 디스플레이, 전원, 메인보드 등에 사용.
필터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함.



\* 출처: KTB투자증권, HelloT(전자부품의 기초 지식),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수동 소자 생산 기술 및 기술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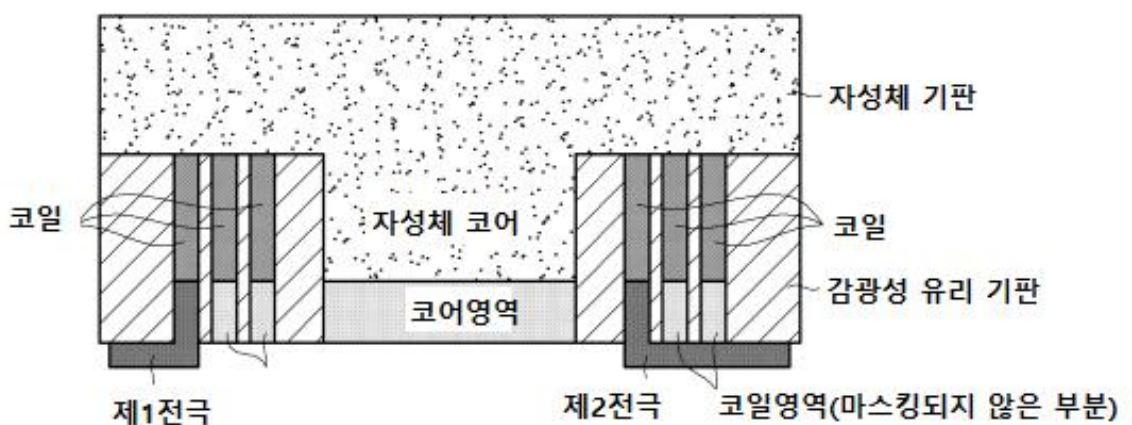
▶▶ 초소형화 인덕터 생산 기술보유

전자제품의 기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웨어러블기기, VR 기술 등의 지능형 기술이 전산업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고밀도 실장기술, 초소형화, 고주파 대역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신호의 간섭이 증가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시그널 인덕터는 노이즈를 원신호의 주파수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하여 신호품질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인덕터는 구조에 따라 적층형, 권선형, 박막형으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시그널 인덕터, 파워 인덕터로 분류된다.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는 메탈, 페라이트, 세라믹 등으로 구분된다. 아비코전자는 권선형 타입의 시그널 인덕터를 국산화에 성공한 후,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안테나, 스피커, NFC의 부품 생산에 공급 중이다. 1973년부터 수동 전자부품 제조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인덕터 초소형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0.4mm \* 0.2mm 사이즈의 시그널 인덕터 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MEMS 공법을 융합하여 고성능, 초소형 인덕터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MEMS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미세가공 기술을 접목한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소형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당사는 공정 시간 단축과 저가의 공정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자성체 기판에 직접 코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용이한 감광성 유리기판 등의 별도의 기판에 코일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5. MEMS 공법의 초소형 인덕터 생산기술



\* 출처: 특허정보넷 KIPRIS(10-1887106),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페라이트, 메탈 타입 파워 인덕터 상용화 기술

파워 인덕터는 전원공급장치 및 회로에 적용되며, 특정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회로에 사용되고, I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세라믹 자성체인 페라이트와 메탈 소재를 이용하여 생산되며, 용량 및 적용되는 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된다. 동사가 생산 중인 페라이트 타입의 제품은 LPF, LPS, LPSR, LPH, LPB가 있으며, 메탈 타입은 LPP, LPM, LPSM, LPHM, LPSC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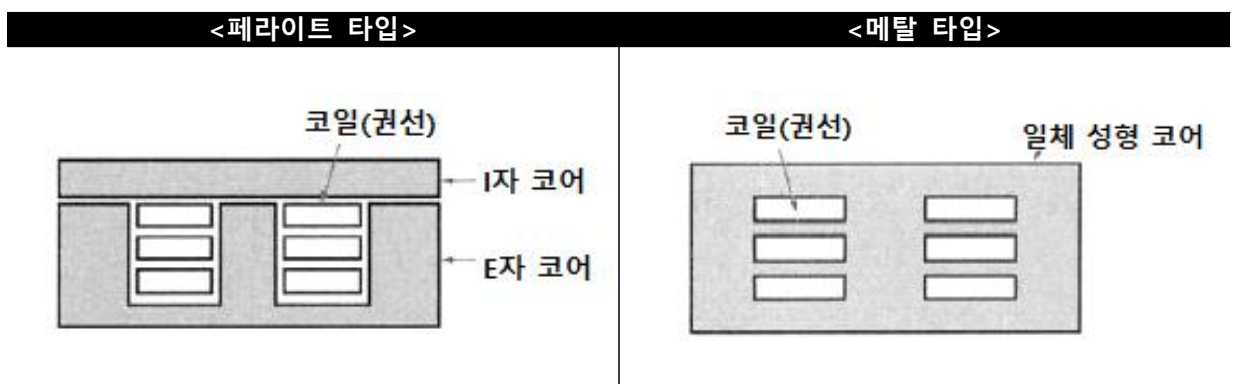
그림 6. 아비코전자의 파워 인덕터

<페라이트 타입>		<메탈 타입>	
			
LPF	LPS	LPP	LPM
			
LPSR	LPH	LPSM	LPSC

\* 출처: IR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페라이트는 코어 손실률이 낮은 재료와 도전율이 낮은 Ag 전극으로 후박 인쇄 및 적층하여 저전류에서 우수한 직류중첩특성을 지닌다. 직류중첩특성은 자기 포화로 인해 인덕턴스의 저하로 인덕터의 기능을 잃는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메탈타입은 카르보닐철 등의 금속재료와 열경화성 수지를 혼합시킨 금속재료에 코일을 형성한 것으로, 코일 제작방식에 따라 박막형, 권선형으로 구분된다. 메탈타입은 페라이트 인덕터의 발열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형화 기술이 가능하며, 직류중첩특성 또한 우수하다. 파워 인덕터의 성능이 개선되고, 초소형화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IoT기기, SSD 등의 전원회로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사의 메탈타입 파워 인덕터는 2019년부터 페라이트 타입보다 공급이 확대되었다.

그림 7. 타입별 파워 인덕터 구조도



\* 출처: HelloT(소형/대전류화되는 보드전원용 인덕터),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8. 동사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작성

▶▶ **Strength Point : 핵심 수동소자 생산기술 국산화 및 기술진입장벽 구축**

국내 수동 소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은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사는 2016년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휴대용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초소형, 고용량 권선형 인덕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1994년부터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PCB 임베디드 수동 부품 및 소자 기술 개발, 초소형 SMD 타입의 파워 인덕터 개발 등 다수의 국책과제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였고, 시장 내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에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였다.

▶▶ **Opportunity Point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2019년에 실행되었던 1.0 전략보다 품목을 확대하고 첨단형과 범용형을 구분해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스마트카, 반도체, 바이오 빅3 산업에는 2021년 약 2조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으로 밝혔다. 아비코전자는 국내 수동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5G RF 모듈용 고용량 저손실 초소형 인덕터를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에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5G, IoT, 커넥티드카, 빅데이터, AI 등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핵심 수동부품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Weakness Point : 인력 유동성의 어려움 및 높은 전방시장 의존도**

전자부품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분야이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산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소재, 집적화, 소형화 기술이 요구되어 개발 인력의 높은 전문성이 필수적이므로 인력수급 유동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당사는 제품개발 및 공정효율화 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전방산업의 기술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부품 산업은 전방 산업에 종속되어 성장하며, 완제품의 수직적 연결구조로 산업이 형성되어있다.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등 상위시장 경기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 **Threat Point : 팬데믹, 글로벌 생산시스템 균열 발생**

수동부품은 MURATA, TDK, TAIYO YUDEN, 삼성전기 등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전장용 수동소자의 점유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내 기업은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제품 생산 가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자부품은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하였다. 플래그십, 중저가 스마트폰이 신규 출시되고,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IT 관련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수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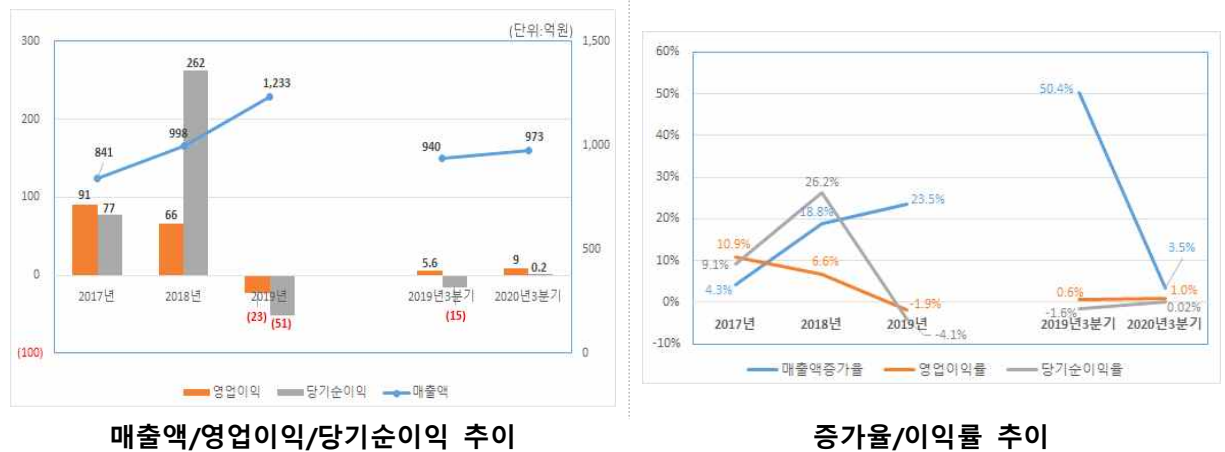
###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통한 매출 성장세 시현

동사는 1973년에 설립되어 2002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위한 인덕터, 칩저항기 등 전자 수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LPP 파워인덕터 등의 공급을 시작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0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기/전자산업의 부진 등으로 수동소자 사업의 성장은 제한적이나, PCB사업에서 기존의 국내 대형업체와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우량업체 발굴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전장품 전문 업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 2019년 종속회사 실적 반영에 따른 매출 증가

동사의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범용 전자 수동부품인 수동소자 사업과 2018년 PCB 제조업체 아비코테크를 인수하면서 PCB 사업부문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아비코테크의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2019년 결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5% 증가한 1,233억 원을 시현하였고, 매출 비중은 수동소자 부문이 59.4%, PCB 부문 40.6%로 구성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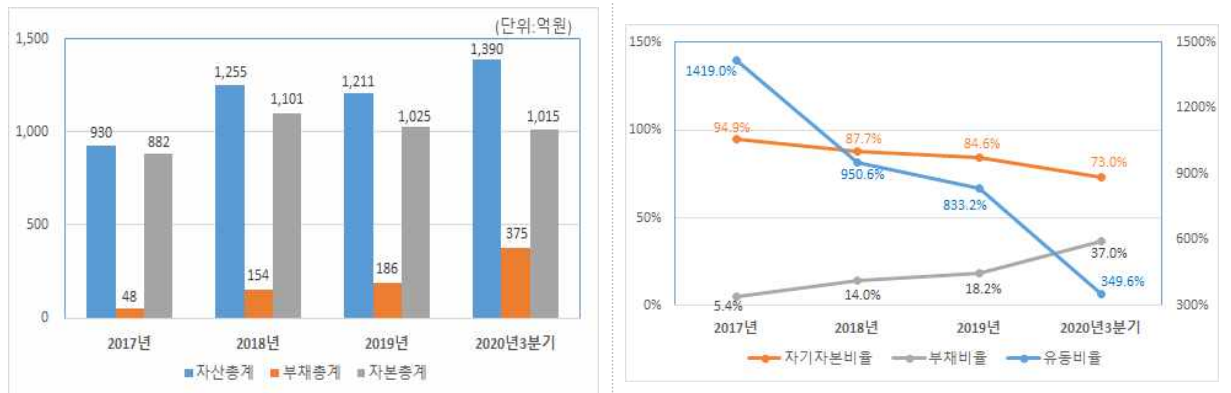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 2019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적자 전환

동사는 2019년 결산기준 주력 사업인 수동소자 부문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 아비코테크의 매출 반영(직전사업연도 매출반영 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한 1,233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841억 원(+4.3% YoY), 2018년 998억 원(+18.8% YoY)에서 2019년 1,233억 원(+23.5% YoY)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신장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소폭 완화되었으나, 원가율 상승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8년 6.6%, 2019년 -1.9%를 기록하며 영업수익성이 적자 적화하였다. 전기 사업결합 관련 염가매수차익의 제거 및 추납세금 발생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 등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이 2018년 26.2%, 2019년 -4.1%를 기록한 바,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하며 다소 미흡한 수익성을 시현하였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입금 발생 등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및 적자 시현으로 인한 자기자본 축소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전년 대비 저하된 자기자본비율 84.6%, 부채비율 18.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대비 차입부채 비중(차입금의존도 1.7%)은 미미한 수준이며, 유동비율 833.2% 등으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였다.

### ■ 2020년 3분기 매출 다소 증가 및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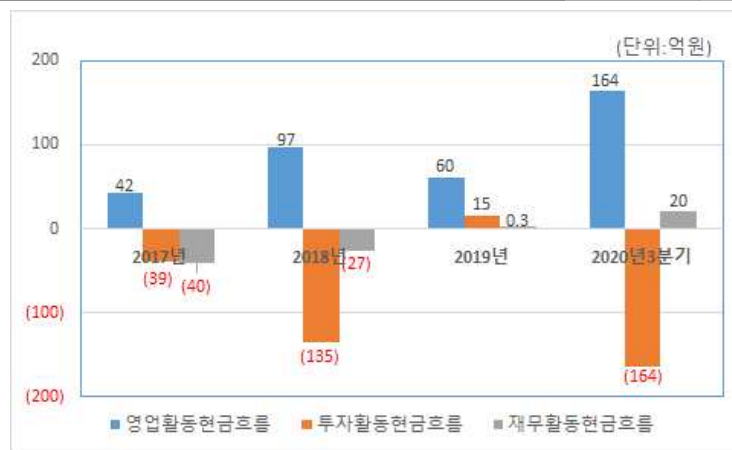
2020년 3분기 기준 인덕터, 저항기 등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34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가운데, 원가 부담 완화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된 1.0%를 기록하였고, 금융수지 저하에도 법인세비용 감소로 매출액순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0.02%를 기록,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미흡한 수익구조를 나타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로 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당기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자기자본 축소 등으로 부채비율 37.0%, 자기자본비율 73.0%, 유동비율 349.6%를 기록하며 전년 결산 대비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고, 최근 재무구조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지, 사내 유보자금 확충

2019년 순손실 발생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 3년간 정(+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영업창출현금 60억 원을 비롯하여 금융자산 처분 등의 투자활동을 통해 유입된 15억 원 등 대부분의 자금을 사내 유보함에 따라 전기 말 대비 현금및현금성 자산이 약 74억 원 증가하였다.

그림 11.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기술발전에 따른 응용분야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과 전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능화 기술의 발전 및 자동차 전장품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IoT, 5G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SW 등의 디지털 기술이 기반기술과 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기술변화를 의미한다. IT 기기들이 기능이 다양해지고, 고전력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파워인덕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의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인덕터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품, 조명 등의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전장향 파워인덕터를 개발하여 꾸준한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에서 확대된 IT와 자동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전장 부품 탑재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KPMG 보고서에 따르면, 전장 부품 탑재율은 2000년 22%에서 2020년 50%로 증가하였고, 세계 전장 부품 시장은 약 363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2. 아비코전자의 자동차 전장향 매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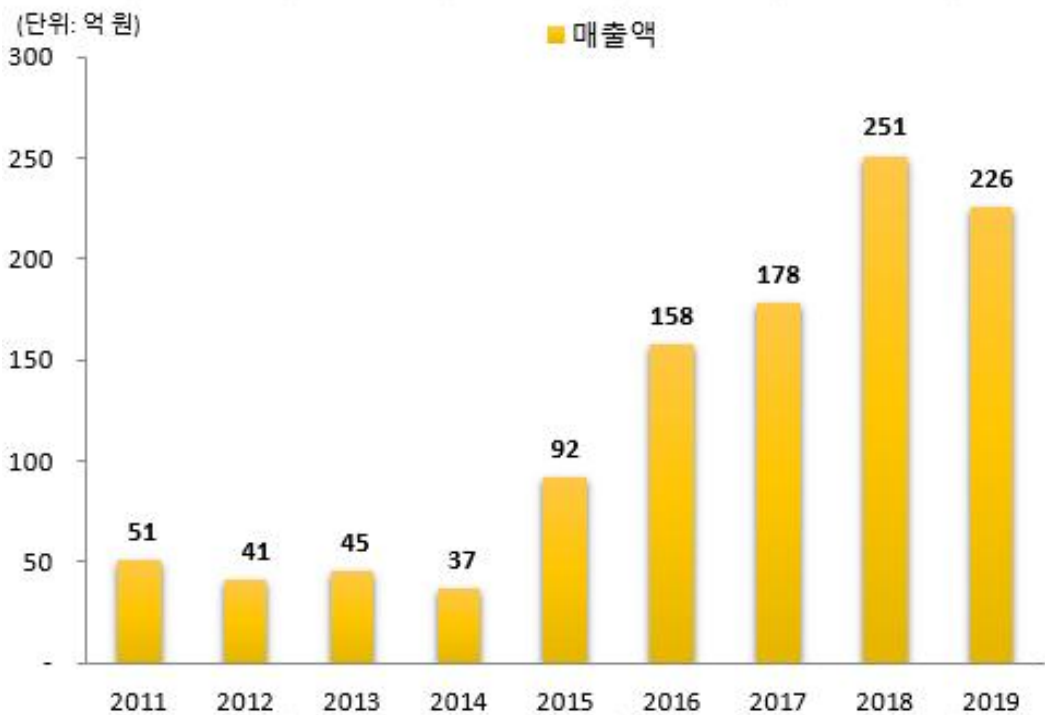
\* 출처: IR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DDR5 시장 본격화로 매출 신장 기대

저항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인덕터와 마찬가지로 칩 형태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DRAM 아키텍처의 발전과 함께 동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DDR4 대비 30% 전력 절감효과 및 2.3배 전송속도가 개선된 차세대 DRAM 아키텍처 DDR5 표준화 기술이 시작되었다. DDR5는 향후 빅데이터, IoT 등의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필수 기반기술로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DRAM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칩저항기의 공급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0. 아비코전자의 반도체향 매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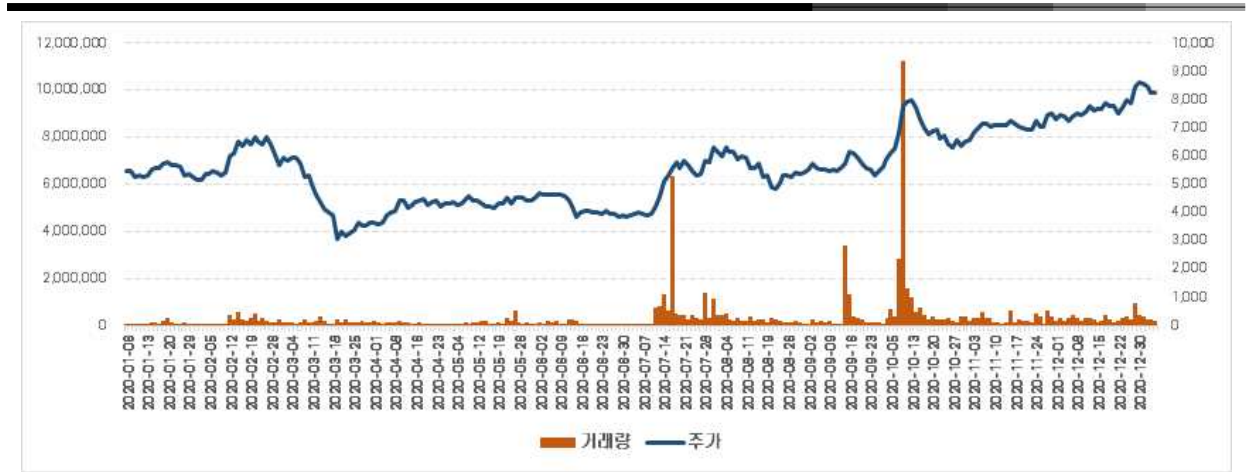


\* 출처: IR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li> </ul>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1.)